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뻥튀기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쌀, 감자, 옥수수 따위를 불에 단 틀에 넣어 밀폐하고 가열하여 튀겨 낸 막과자. 튀겨져 나올 때 뻥 하는 소리가 나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20세기	2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뻥튀기'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쌀, 감자, 옥수수 따위를 불에 단 틀에 넣어 밀폐하고 가열하여 튀겨 낸 막과자. 튀겨져 나올 때 뻥 하는 소리가 나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뻥튀기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뻥튀기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뻥튀기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뻥튀기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뻥튀기

뻥튀기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뻥튀기’는 20세기부터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뻥튀기’는 기계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의성어인 ‘뻥’과 ‘튀기’가 결합한 말이다. 그런데 ‘튀긴 것’의 의미로서 ‘튀기’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뻥’에 ‘튀기’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뻥튀기’라는 말이 만들어진 방법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뻥 튀-’라는 말에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뻥튀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튀-’는 솟아오른다는 의미만 있어 튀겨 만드는 ‘뻥튀기’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또 다른 하나는 ‘뻥 튀기-’에 ‘-기’가 붙어서 ‘뻥튀기기’가 되어야 하는데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서 ‘-기’가 줄어 ‘뻥튀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뻥’ 소리와 함께 튀겨진 쌀이나 옥수수 따위로 가공된 과자가 ‘뻥튀기’이므로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단어로 ‘겉절이’를 더 들 수 있다.

말의 구성과 어원

‘겉절이’는 배추, 상추, 무 따위를 절여서 곧바로 무쳐 먹는 반찬이므로 이것도 ‘겉 절이-’에 파생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그런데 ‘겉절이이’에서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서 ‘-이’가 줄어 ‘겉절이’가 되었다.

문헌 속의 벙튀기

전체 용례 2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뻥튀기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뻥튀기

출처 1975 조선일보 2월 6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검푸른 물속으로 문득 잉어 5~6마리가 나타났는데, 못이 커짐에 따라 잉어들도 뻥튀기가 부풀 듯 커졌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78 경향신문 6월 29일 3면 용례 02

문헌 용례

주된 메뉴는 요즘 갑자기 뻥튀기의 후속 타자로 등장한 쥐치포와 연필 모양의 청량음료인 무슨 무슨 바 같은 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뻥튀기의 보충 설명

'뻥튀기'를 만드는 최초의 기계는 1901년 미국의 알렉산더 앤더슨(Alexander Anderson)이 개발하였다. 그는 기존의 콘플레이크와는 달리 곡물을 팽창시키는 방식의 시리얼 기계를 발명하여 이것으로 쌀을 튀겼다. 이를 'puffed rice(튀긴 쌀, 튀밥)'라고 했으며 기계는 'puffing gun(튀기는 총)'이라고 했다. 이 기계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기계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개선되었고 이 기계로 만든 제품은 'ポン菓子'(폰가시), 'ぽんぽん菓子'(폰폰가시)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ポン', 'ぽんぽん'은 압력실을 개방하는 순간 나오는 폭음을 본뜬 말이다. 이 기계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동아일보≫ 1932년 1월 28일 5면에 '곡물 팽창기'라는 이름의 기계 광고가 실렸고 '돈 모기(모으기) 대왕'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도향의 <어머니>라는 작품에 '뽕뽕과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ぽんぽん菓子'를 번역한 말인 듯하다. 과거에는 다 튀기고 막았던 문을 개방하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랄 폭음이 나서 뻥튀기 장수가 열기 전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호루라기를 불거나 뻥이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 '강정', '튀밥', '감밥', '강밥', '광밥', '괌밥', '밥상', '박상'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오래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뻥튀기'라는 말은 늦게야 쓰임이 확인된다. 신문에서 1970년대나 되어야 '뻥튀기'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때 이미 과자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과장한다는 비유적인 쓰임도 나타난다. 사람들이 쓰기는 했지만 늦게야 관심을 받고 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뽕뽕과자'처럼 다른 말로 사용되다가 뒤늦게 '뻥튀기'라는 말로 정착된 것일 수도 있다.

뻥튀기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신중진 1999 《의성어의 조어 원리와 단어 형성 참여 양상》 도서출판 박이정
- 민태기 2021 《판타 레이》 사이언스 북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뻥튀기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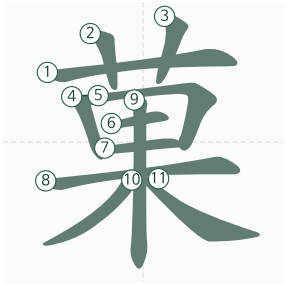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菓

뜻·음 과자 과·실과 과

총 12획 · 부수 艸





사전 12획 · 획순 그림 11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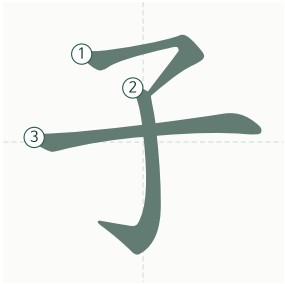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菓/

子

뜻·음 아들 자

총 3획 · 부수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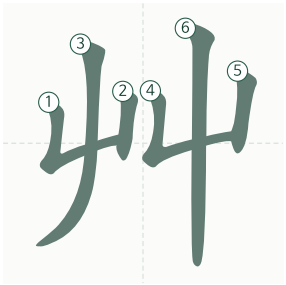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子/

艸

뜻·음 풀 초

총 6획 · 부수 艸





hanja.wordrow.kr/한자/艸/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